

믿음의 사람들 VII.

'아들됨' 이 없으면 결국 다 흔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8:18-19]

18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Sonship'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으로부터 온다.

2. 믿음의 관계설정

하나님과 믿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오늘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회사의 보스가 아니다.

'믿음이란 내가 소원하는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절대적 존재를 향한 신뢰의 마음' 을 말한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조건부 상황에 따른 믿음이 아니다. '절대믿음' 을 말한다. 절대믿음의 예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믿음은, 예수님의 '아들됨 (sonship)' 으로부터 온다.

3. 아들됨(Sonship) 이 형성된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 됨의 회복되며,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4. 흔들리지 않는 절대믿음 '아들됨(Sonship)'

(1) 아들됨(Sonship) 은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는 눈이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다.

[사무엘상 30:3-6]

3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4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올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5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6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들됨 (Sonship)이 깨진 경우를 보자. 다윗이 겪었던 아말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자.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과 다윗 부하의 가족 모두를 납치했을 때, 그들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다. 다윗과 다윗 부하들 가족의 희생은 그들과 다윗안에 있었던 관계의 실재를 보여준다.

믿음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상황적이었고 조건적이었다. 절대믿음이 아니었다.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게 된다. 그 흔들림은 신뢰의 대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를 향해 다윗의 부하들처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 버리면 자신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이다. 그들은 선악과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죄성' 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계는 이 죄성 위에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기위해 남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늘의 절대성을 잃은 땅의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모든 문제의 답을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땅에서 찾는다. 이런 죄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불안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ㄱ) 다윗의 부하들 :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윗(사람)에게 돌렸다.

ㄴ) 다윗 :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 (6절)' 이라고 고백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들됨(sonship)' 의 마음과 같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 라고 고백한다.

(2) 아들됨(Sonship) 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다.

성숙한 자녀의 마음이다. 미성숙한 자녀는 자신의 뜻만을 기뻐한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한다. 미성숙함은 자신의 뜻에만 집중한다. 아들됨(Sonship) 이 있는 성도는 언제나 '내' 가 아니라 상대방 지체의 유익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 왜 그럴까? 아들됨(Sonship) 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3) 아들됨(Sonship) 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다.

진정한 아들됨은 '희생' 의 삶으로부터 온다. 진짜 사랑이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힘들지만 희생한다.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한 이유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매정하게 죽인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가짜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원하여 지신 것' 이다.

(4) 아들됨 (Sonship) 안에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들됨의 비밀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을 절대믿음의 비밀이 있다.

ㄱ)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다.

ㄴ) 자녀들의 고통

어떤 아버지도 자신의 뜻을 위해 자녀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들에게 고통을 주지않는 것이다.

ㄷ)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버지가 젊어지라고 아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100%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신 것이다.

아들됨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희생하는 삶' 을 말한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기쁨으로 희생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다. 왜 오해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들됨 (Sonship)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아들됨은 신랑의 사랑을 깨달은 신부가 자원하여 몰약산을 향해 가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같다. 이 사랑이 교회에 있으면 왜 문제가 생기며, 이 사랑이 가족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죄의 권세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가?

(5) 아들됨 (Sonship) 은 '아버지의 것' 을 당당하게 상속받는 마음이다.

[로마서 8:16-19]

16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8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상속자' 를 말한다.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것을 물려 받는 자들을 말한다. 아버지의 것은 무엇인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18절) 을 당당히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을 자들인 것이다. 이것이 아들됨의 마음이다. 결국에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이 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마음이다. 아버지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과, 위대함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6) 아들의 능력은, 내면 안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신감' 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늘과 땅의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는 장소가 예수님 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주파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아들' 의 마음임을 명심하라

(7) 아버지의 부유함, 풍성함, 온전함을 경험한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며,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인다.

(8)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아들됨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할 것이다.